

## Henkel, 4년연속 글로벌 모범기업 선정

Henkel이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명단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기업윤리 연구소인 Ethisphere Institute가 윤리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랭킹에 Henkel이 4년 연속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Henkel은 4년간 이름을 올림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글로벌 모범기업의 명성을 공고히 했다.

Henkel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포드, 스타벅스, 톰슨 로이터, GE 등이 2011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헨켈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기관인 Oekom이 선정한 Drug Store 및 코스메틱 부문 세계 최고의 사회적·환경적 기준 보유기업 ▲HR, 리더십, 전략 부문 인력 평가 기관인 CRF Institute가 2년 연속 뽑은 독일 최고 고용기업 ▲캐나다의 미디어기업 Corporate Knights의 글로벌 100대 지속가능 기업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의 지속가능성 어워드를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랭킹은 세계 100개국 이상, 38개 사업 분야의 후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단이 사회적 참여, 경영방식 혁신 성장 등을 평가한다.

<화학저널 2011/03/23>